

26.10.02-11.14

서리의 해삼도

이 세 준
정 현 두
류 민 지

사이의 해상도

글. 이세준

언제나 우리는 이 세계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라기보다 그것과 내가 형성하는 거리 속에서 구성된 하나의 해상도(resolution)에 가깝다. 세계는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인식하는지, 즉 관찰자가 대상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층위로 분해되거나 새롭게 조직된다.

이때 해상도는 단순히 더 또렷하거나 흐릿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어떤 밀도와 구조로, 그리고 어떤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를 결정하는 시각의 조건이다.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대상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형태는 해체되어 물질의 덩어리로 흩어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겨날 때 비로소 흩어진 것들은 하나의 풍경으로 조직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감각과 신체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조건일 것이다. 이를테면 미시세계의 존재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하는 거리가 아득히 먼 간격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 더구나 현대의 시각 경험은 때때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거리와 시선을 동시에 요구하기도 한다. 그 순간 그렇게 구성된 세계는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유지되지 못한 채 분열되고 다시 재구성되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올바른 거리나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해상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대상과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한 상태일 뿐이다.

정현두의 회화는 대상의 본질에 대한 감각적 접근에서 출발한다. 그의 화면은 형상을 안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그것이 무너지는 지점까지 밀어붙인다. 거칠게 축적된 물질은 더 이상 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 이전의 상태, 아직 조직되지 않은 감각의 덩어리로 되돌아간다. 그렇기에 그의 회화는 일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근접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세계는 해상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높아진 밀도 속에서 더 이상 하나의 형상으로 읽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전환된다. 가까워짐으로써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던 형상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물질과 감각이 모습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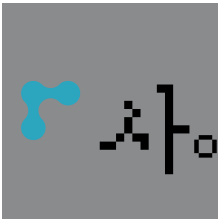
류민지의 작업은 다른 두 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풍경으로 성립하는 일종의 ‘보편적 거리’ 위에 놓여 있다. 여기서 보편적 거리란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풍경으로 받아들이는 익숙한 감각의 거리에 가깝다. 그의 화면에서 감정과 시선은 일정한 균형을 이루며, 관람자는 그 안에서 익숙한 공간과 정서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렇게 형성된 풍경 역시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공기와 빛, 색의 미묘한 흔들림은 지금 눈앞에 놓인 풍경이 하나의 확정된 세계라기보다 특정한 시선과 감각 속에서 잠시 조직된 상태임을 암시한다. 그의 회화는 세계가 하나의 이미지로 읽히는 순간과 그것이 다시 다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유지한다.

이세준의 작업은 하나의 해상도로 세계를 통합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서로 다른 거리와 시선을 하나의 화면 안에서 충돌시키고, 분리된 이미지와 공간을 다시 연결한다. 화면은 분할되고 이어지며 때로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관람자의 위치와 이동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는 세계를 가능한 한 많은 방향에서 바라보고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전체에 접근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전체가 하나의 시점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서로 다른 거리에서 발생한 이미지들은 하나로 수렴하지 않은 채 나란히 놓이고, 중첩되며, 충돌한다. 세계는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되기보다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복수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 전시는 세 작가의 회화를 통해 세계가 고정된 형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우리 사이의 거리와 시선에 따라 끊임없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미지는 때로 밀접한 거리에서 형상을 벗어나 감각과 물질의 덩어리로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의 풍경으로 조직되어 익숙한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이미지들은 서로 다른 거리와 시선이 중첩된 채 존재하며, 단일한 인식으로는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구조 자체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세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조건이며, 그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가 세계라고 믿었던 모습 역시 함께 달라진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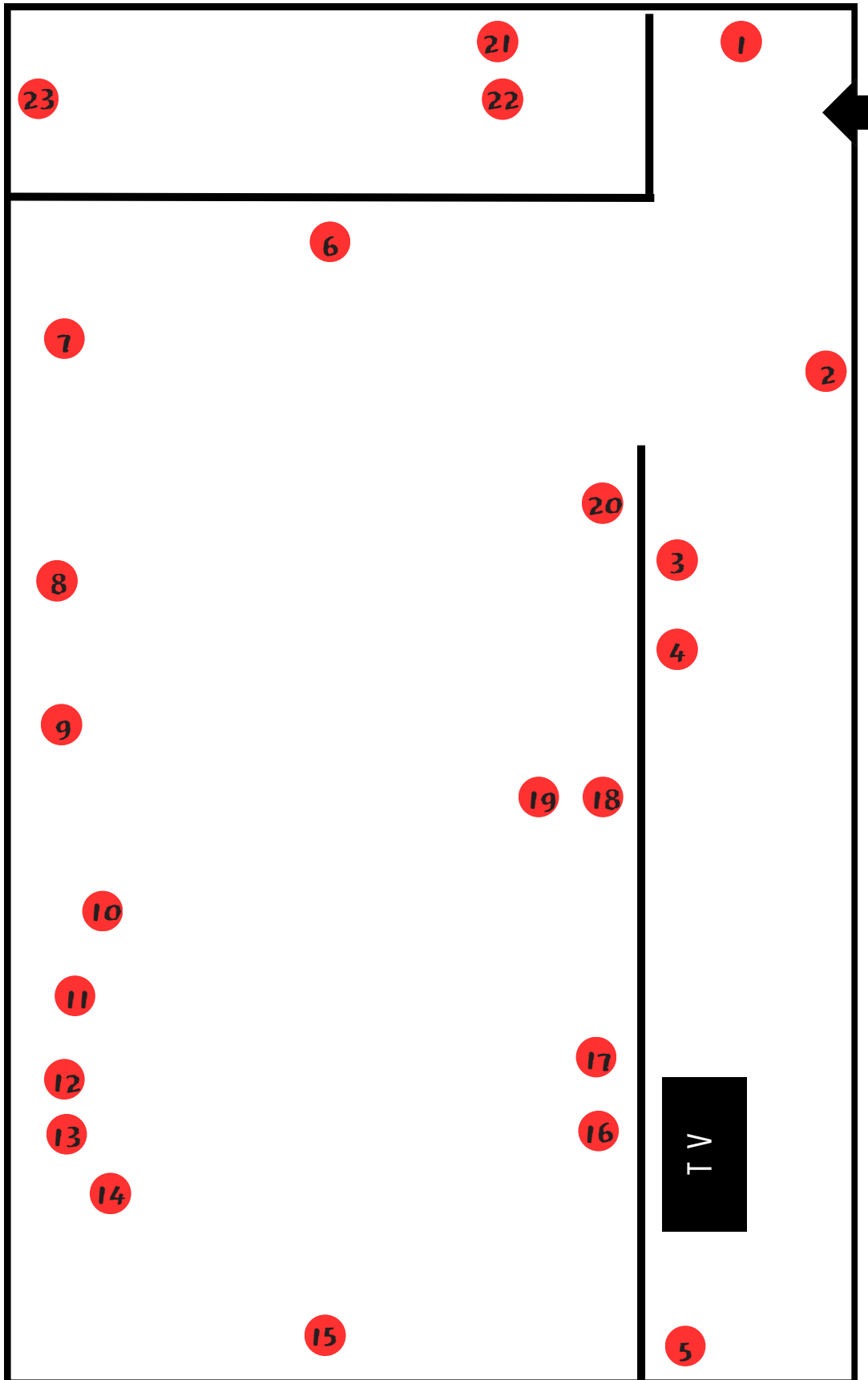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는 세계는 과연 세계 그 자체인가, 아니면 나와 세계 사이에서 잠시 맺힌 하나의 형상인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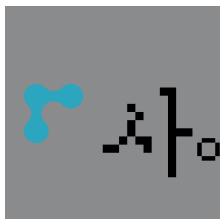


사이의 해상도

이세준
정현민
류민지

10.2 - 11.14 2026





1. 이세준 /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리넨에 유화와 아크릴릭, 형광안료, 150×100cm, 2022
2. 정현두 / 이 곳에서 그것을, oil on linen, 193.9x40cm, 2026
3. 정현두 / 선과 직조, oil on wood and canvas, 가변크기, 2026
4. 정현두 / 선과 직조, oil on canvas, 90.9x72.7cm, 2026
5. 이세준 / 새가 들은 밤의 이야기들, 리넨에 유화와 아크릴릭, 53x45.5cm, 2026
6. 류민지 / 선 너머의, acrylic on canvas, 130.3x162.2cm, 2022
7. 정현두 / 2412.9-250125, oil on canvas, 90.9x60.6cm, 2025
8. 류민지 / 유리, 창틀, 나무 그림자, acrylic on canvas, 130.3x97cm, 2025
9. 류민지 / 굽이진 골목, acrylic on canvas, 145.5x112.1cm, 2025
10. 이세준 / 해변 산책, 리넨에 유화와 아크릴릭, 33.4x24.2cm, 2026
11. 정현두 / 241209-1223, oil on canvas, 72.7x53cm, 2024
12. 류민지 / 하나의 빛 혹은 그림자 1, acrylic on canvas, 34.4x24.2cm, 2023
13. 류민지 / 하나의 빛 혹은 그림자 2, acrylic on canvas, 34.4x24.2cm, 2023
14. 류민지 / 빛을 향해 걷는 사람들, oil on canvas, 45.5x53cm, 2024
15. 이세준 / 황혼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리넨에 아크릴릭, 형광안료, 130.3x193.8cm, 2026
16. 류민지 / 달리는 빛, acrylic on canvas, 116.8x80.3cm, 2026
17. 류민지 / 늘어진 나무, acrylic on canvas, 116.8x72.6cm, 2026
18. 류민지 / 굽이진 골목, acrylic on canvas, 45.5x53cm, 2024
19. 정현두 / 장면, 53x45.5cm, oil on canvas, 2026
20. 정현두 / 웬지 바람이 불것 같은 날에, oil on linen, 150x50cm, 2024
21. 이세준 /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 리넨에 유화와 아크릴릭, 33.3x45.5cm, 2026
22. 이세준 / 기억의 조각들01, 리넨에 유화와 아크릴릭, 37.9x45.5cm, 2026
23. 이세준 / 긴 여행의 시작, 리넨에 유화와 아크릴릭, 72.7x90.9cm, 2026

이 세 준 (b.1984)

학력

- 202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박사, 서울, 한국
- 2013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석사, 서울, 한국
-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서울, 한국

개인전

- 2025 <어떤 우주를 그리는 법>, 포스트 에디션 갤러리, 전주
<Picturescape>,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24 <가능세계의 그림들: 평택형 청년작가지원 선정>, 평택북부문화회관
<랍스타 편지: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 결과보고전>, 고양시
- 2023 <스페이스 아케이드: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 결과보고전>, 고양
<마침내 너와 내가 만나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메타-픽션>, 공간 황금향, 서울
- 2020 <A Day After of the End>, 소원, 서울
<스페이스 오페라: KSD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KSD 갤러리, 서울
- 2019 <표면의 풍경 : 북구 예술 창작소 결과보고전>, 갤러리 아리오소, 울산
<세계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16 <포락지: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기금 선정>, 케이크 갤러리, 서울
<늪과 숲: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 777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양주
- 2015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13 <무한을 유한 속에 담는 방법: 안국약품 신진작가 공모 선정전>, 갤러리AG, 서울
- 2012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SeMA 신진미술인 선정>, 키미아트 갤러리, 서울



단체전 및 프로젝트

- 2026 <이세준 X 이미정: 풍경을 이루는 순간들>, Oci미술관, 서울 <해변의 아인슈타인>, 갤러리 로운, 서울 <페레
럴 그라운드>, 경희대학교 미술관 KUMA, 서울 <불의 씨앗>, 시안미술관, 영천 <Keep Going #5>,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25 <아틀리에 아키 15주년 특별 기념전 2부>, 아틀리에 아키, 서울 <Who With What>, MK2 Showroom,
양평 <평택아트 브런치, 잇는 예술 여는 도시: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전>, 평택 남-북부 문화회관, 평택
<Unfolded Studio X Chronotope Modular Sync> 이세준 X 장진솔, 금천예술공장 창고동, 서울
<그날의 이야기: 이세준 X 오지은>, 벗이 미술관, 용인 <무리없던 당면, 그리고 현재>, 유아트 스페이스,
서울 <제2회 노원 현대미술제 바람의 이동 경로>, 경춘선 숲길 일대, 서울 <AP9 유포리아> 이세준, 신준민,
정유미,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파주 <Keep Going #4>,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24 <궤적을 연결하는 점들: 경기 시각예술 창작지원>,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고양 <물고: 레지던시 교류전>,
양주시립창작스튜디오 3층갤러리, 양주 <파션+미토콘드리아+시스템>, Hall1, 서울
<비록 Secret Records>, 챔버, 서울 <Here Ready Art! : 해움 새들 2기 입주작가 프리뷰>, 고양시
예술 창작공간 해움
원도우 갤러리, 고양 <캔버스 크로니클스 :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예술적 여정>,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판교점,
서울/성남 <Keep Going #3>,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외 다수.

작품 소장처

- 2026 OCI미술관 <이미지의 탑>(2026), 리넨에 아크릴릭, 형광안료, 90.9×60.5cm
- 2025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이미지를 고르는 시간>(2019), 리넨에 아크릴릭, 형광안료, 97×130cm
- 2024 서울시립미술관, <그려진 그림>(2023), 리넨에 유화와 아크릴릭, 형광안료, 260.6×387.4cm (4pcs.)
- 2024 평택시 문화재단, <여름 노을의 축감>(2019), 리넨에 아크릴릭, 형광안료, 130.3×163.5cm
- 2019 오산시립미술관, <한때는 의미였던 것들>(2016), 리넨에 유화, 형광안료, 100×130cm
- 2016 양주시, <계속되는 의문>(2012), 캔버스에 유화, 90.9×116.8cm

레지던시

- 2026 수원문화재단 푸른지대 창작센터 6기 입주
- 2025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16기 입주
- 2022-24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 레지던시 1,2기 입주
- 2020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4기 입주
- 2019 울산 북구 예술창작소 소금나루 2014 6기 입주
- 2016 Beijing B-Space residency 3기 입주
- 2013-16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 777 레지던스 1기 입주

수상 및 선정

- 2025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선정
- 2025 미메시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선정
- 2024 평택문화재단 우수프로젝트 선정
- 2024 Kiaf Semi Finalist 10 선정
- 2024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작품집 발간지원 기금 선정
- 2024 경기문화재단, 시각예술지원 생생화화 기금 선정
- 2024 평택문화재단, 평택형 청년예술지원 기금 선정
- 2023 제23회 송은미술대상 선정 작가
- 2023 서울문화재단, 리서치 프로그램 기금 선정
-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기금 팀 선정
- 2021 서울문화재단, 리서치프로그램 기금 선정
- 2019 제1회 KSD 미술상 대상 수상
- 2016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기금 선정
- 2014 제3회 가송 예술상 선정 작가
- 2013 Art in Culture, 동방의 요괴들 Best10 선정
- 2013 New York Art Show, 최우수작가 수상
- 2012 아르코 미술관, 신진작가 워크숍 수료
- 2012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 지원프로그램 SeMA 제5기 선정
- 2012 제2회 서울 디지털 대학교 미술상 특선 수상

출판

- 2025 세상의 끝 이후의 어느 날_ 이세준 비평선집, 윌링앤딜링 출판, 서울문화재단 후원
- 2017 포락지 Submerged Land, 물질과 비물질, 서울문화재단 후원

정현두 (b.1987)

학력

20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 석사 졸업

2013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5 <shuffle>, 성곡미술관, 서울

2024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 A-Lounge, 서울

2019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

2018 <밤과 낮의 대화>, Weekend_seoul, 서울

2017 <무지개를 쓴 사나이>, 공간형, 서울

주요단체전

2025 <Free Fractice>, 로이갤러리, 서울

2024 <Dark Change>,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

2024 <Floating Matters>, Case_Seoul, 서울

2023 <계란에서 사과까지>,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2023 <Discovery: 12 Contemporary Artist from Korea>, Rockefeller Center, Newyork

2022 <물질 구름>, Art Space 3, 서울

2022 <이것은 나(너)의 그림이다(아니다)>,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

2021 <견고하고 유연하게>, 카달로그, 서울

2020 <0-인칭 시점>, 경기창작센터, 경기

2019 <당신의 삶은 추상적이다>, Artspace 3, 서울

2018 <Lobby Muddy Carpet>, 2/W, 서울

2017 <Land Play, Keep In touch_seoul>, 서울

레지던시 및 지원

2020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경기문화재단, 경기

수상 및 지원

2026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

2025 성곡미술관 오픈콜

2025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

2024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

2023 Shinhan Young Artist Festa

2022 서울문화재단 예술기반지원 RE:SEARCH

2021 서울문화재단 예술기반지원 RE:SEARCH

2017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창작발표형

2016 겸재정선 내일의 작가



류민지 (b.1988)

학력

2019 서울과학기술대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201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4 <Pictures>, 누크갤러리, 서울

2019 <Moving shapes>, 위켄드, 서울

2018 <빛나는 것들>, Keep in Touch Seoul, 서울

2018 <Starry, starry>, 가변크기, 서울

단체전

2024 <Floating matters>, 케이스 서울, 서울

2023 <시선유희>,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22 <류민지 표영실 2인전>, 미스터고트, 서울

2021 <축적된 자리>,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20 <맑은 세계>, Hotel imaginary, 서울

2019 <식물 x 세계>, 무중력지대 무악재, 서울

2019 <Corners3:Cave and Garden>, Keep in touch Seoul, 서울

2019 <바깥으로 굽는 팔>, 미술세계 갤러리, 서울

2016 <방과 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술관, 서울

2016 <누구에게나 시선은 열려있다>, 화이트블럭, 파주

2016 <First aid kit>, 갤러리뫼, 서울

2015 <제 3 의 과제전>, 사루비아 다방, 서울

2015 <신예작가 7 인전>, 미술세계 갤러리, 서울

2015 <모모>, 정문규미술관, 안산 학력

수상 및 선정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기금 선정

2021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창작사업 LINK 선정

2018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기금 선정

2015 사루비아다방 제 3의 과제전 작가 선정

2015 정문규 미술관 신예작가 7인 선정



사이의 해상도

이세준
정현두
류민지

10.2 - 11.14 2026

Artist Statement

작업노트 우리는 같은 풍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해도 온전히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다. 눈 앞의 순간이 장면으로서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눈앞의 세계는 풍경으로서 마음에 심어진다. 나는 이런 마음에 심어진 풍경의 형태를 건져 올리려 노력하고 있다.

트 ‘본 것을 그린다.’ 라는 고루한 명제를 뛰어넘어 내 마음에 남은 형태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계속 시도했을 때 남겨진 것을 보여주는 일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거라 믿고있다. 이를 위해 감각한 풍경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반복해 그리며, 결국 새로운 곳으로 도달하기를 바란다. 보았던 세계의 빛과 감정을 내면의 색과 형태로 새롭게 직조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았던 세계를 마주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바라본 순간의 의미가 회화를 통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한다.

어느 날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본 기억과 건다가 마주친 그림자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은 삶의 여러 순간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온다. 그리고 미처 언어로 정리되지 않는 이 감정의 조각들은 날 과거로 되돌리기도, 미래로 데려가기도 한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형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반복되는 시간을 거쳐 남겨진 풍경의 형태를 통해 희미해지는 것 사이에서 늘 보던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작업 나는 이 세계의 모습을 회화로 어떻게 온전히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다양한 의미와 사건, 이미지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세계의 복잡성을 하나의 화면 안에 담아내기보다, 여러 점의 그림을 연결해 회화의 크기와 개념을 확장하거나 서로 다른 이미지와 조형 요소를 병치하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충돌과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세준 나에게 회화는 단지 평평한 화면 위에 안료를 얹어 이미지를 그려내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작품이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관람자가 이동하며 작품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순간까지를 회화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작과 설치, 전시와 감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확장된 회화적 구조를 이룬다. 나는 이를 통해 회화가 지닌 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서로 다른 대상과 감각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나의 작업은 그리기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속에서 작품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다음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회화의 형식과 구조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작품은 사고의 최종적인 목적이거나 완결된 답이라기보다, 질문을 만들고 그것에 답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부산물에 가깝다.

작업 나의 신체 바깥에 존재하는 세계는 흐릿한 잔상 같다. 반면 ‘살아있다는 감각’은 생각이 발생하고 흘러가고 사라지며 붙잡을 수 있는 형태가 없지만 나에게 가장 선명한 경험으로 다가온다. 나는 내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한 증거로서의 그리기를 이어간다.

정현두 현재의 붓질은 앞선 붓질에 이어지는 반응이며,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에 신체가 반응한 흔적이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축적되어 하나의 맥락을 이루듯 사각의 화면에 모든 표현이 직조되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때까지 그린다. 그렇게 행하는 붓질의 결합은 그림의 피와 살과 뼈를 이루는 것 같다. 하나의 그림은 그때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인물 같다.

나의 붓질이 살아있는 신체가 행한 흔적이고 하나의 그림이 그 당시 경험의 축적이듯, 그림을 그리며 시공간을 살아가는 나와 전시의 형태로 펼쳐지는 그림의 삶이 닮기를 바란다. 마치 내가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를 바라보는 것처럼 과거의 그림과 현재의 그림이 서로 관여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가거나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고민한다.



H-flux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